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19일(목) 총 6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자	• 스마트그린산단팀장 • 담당자	최용대 ☎440-4286 도경재 ☎440-4287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친환경 관리, 인천 중심으로 해결한다.

- 산업부,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인천·전북·울산) -
- 화학물질 사용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이고, 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인천TP·전북TP·울산TP와 함께 인천·전북·울산 3개 권역별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인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626억 원(국비 415억, 지자체 140억, 민간 71억)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을 신산업분야로의 전환 및 지원을 위해 화학기반 중견·중소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3개 권역 중 인천을 거점으로 추진해 총사업비 626억 원 중 인천에 269억 원(국비 169억, 시비 60억, 민간 1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조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및 규제 확대·강화*(화평법, 화관법, 산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9. 1 개정 시행)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15. 1 시행, '19년 기존사업장 예외조항 종료)

산업법 : 산업안전보건법 ('82. 7 시행, '19년 MSDS 사전승인 등 관리요건 신설)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으로 ▲ ‘OPEN LAB 운영’은 시험평가 분야 범용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성능평가 지원’은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지원·규제대응 통합관리 지원, 화학안전 규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당기업 직접 지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종합 지원 ▲ ‘제조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기반 친환경·안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배출량·사용량 관리 지원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친환경적 소재 개발,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 산업에 맞춰 3개 ‘개방형 실험실(오픈 랩)’ 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 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

중의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성 평가 기간이 30% 단축되고, 비용이 7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화학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를 이끌어 유망기업에 대한 기능성·신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석 장비·기술지원 서비스·협력네트워크 등 제공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험평가 비용·강화된 규제대응 비용·시설개선 지원 등 직접 지원을 통해 화학·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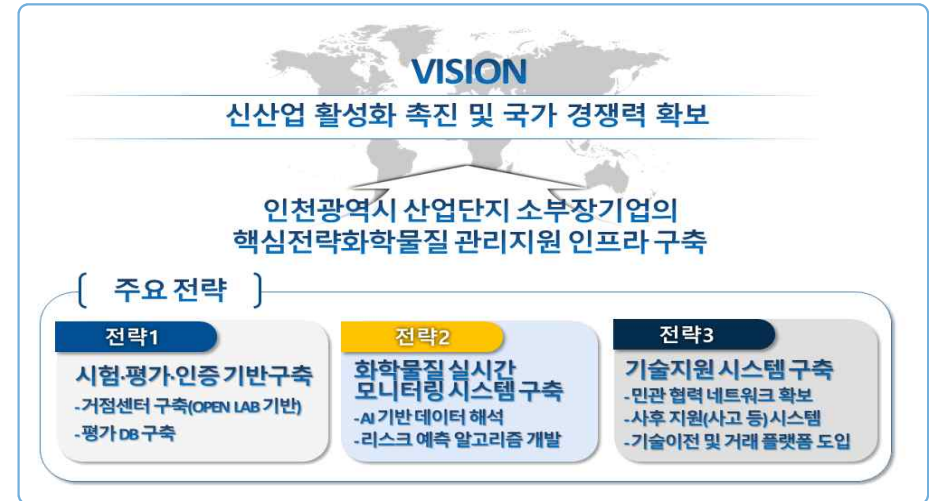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안전 개선과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의 혁신성장 과 그린뉴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된다” 고 말했다.

<참고>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사업계획(요약)

참고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요약)

□ 사업비전



□ 주요 사업내용

시험 평가 인증 기반 구축



- OPEN LAB에 기반한 화학물질 시험평가 인증 기반 구축
 - ✓ 화평법, 화감법, 살생법 등 국내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체감형지원
 - ✓ 기업수요에 따른 탄력적 장비 구축 운영
- 핵심전략물질 선정(고부가가치 기준)
- 평가 DATA BASE 구축
 - ✓ BIG DATA 기반 관리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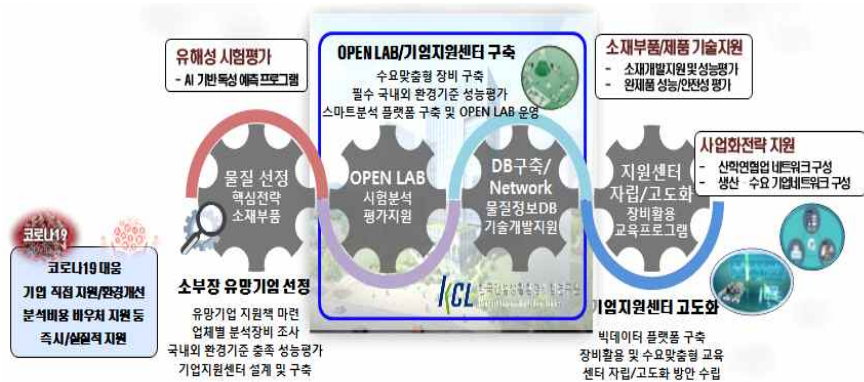
- 컨소시엄 기관을 통한 전담 운영
 - ✓ AI 기반 데이터 해석
 - ✓ 위험관리 해석 알고리즘 개발
- 화학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 ✓ 평가 BIG DATA 와 연계한 관리 시스템

기술규제 대응 지원



-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등록 전과정 지원
- 기술 거래 플랫폼 마련
- 국내외 규제 대응 컨설팅
 - ✓ 화평법, EUREACH 등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 의약품 전임상, 효능평가 등 시제품 개발

□ OPEN LAB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



□ 안전관리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추진 체계도

